

지역 소식 통

부안군, 읍·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회의 개최

부안군은 지난 28일 청우 평생학습관에서 읍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본청 사회복지담당자들과 13개 읍면 사회복지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각 분야별 주요사업과 관련 법령 지침의 변동사항 등에 대하여 전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제도적 개선 및 건의(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읍면 및 군정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복지공무원들의 긍지와 사명감을 돈독히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부안 군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수호천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올해 부안군은 1352억원의 예산을 복지사업에 편성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의 생계안정을 장려인 노인 등 분야별 복지사업을 충실히 추진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미래 농업 이끌
청년·후계농 모집 시작

정읍시가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자 2025년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경영인(후계농)'을 모집한다. 젊고 유능한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예정되어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18세 이상 40세 미만(1985.1.1.~2007.12.31. 출생)의 영농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선발된 이들은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 3년간 월 9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바우처 형식의 영농정착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정책자금을 통해 최대 5억원의 융자금을 대출받아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도 가능하다.

후계농은 18세 이상 50세 미만(1975.1.1.~2007.12.31. 출생)의 영농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육아 부담 줄이고 행복 키운다”

정읍시, 육아수당 20만원으로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위수탁 협약 체결

정읍시가 2025년부터 육아수당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며 고물가 시대에 양육 부담 경감에 나섰다.

시는 올해 육아수당 지급대상인 1600여 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영 만족도가 '경제적으로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처로는 식비(60%)와 육아용품(15%)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물가 상승에 따른 육아수당 증액을 희망한다는 의견이 90% 이상을 차지해 이번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지원 대상은 시에 보호자(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59개월 이하 영유아이다.

기존 지원 대상 아동은 별도 절차 없이 읍·면·동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신규 대상(출생아 등)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정읍사랑상품권 형태로 매월 25일에 이뤄지며,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전일에 지급된다.

정읍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앱과 연동해 충전 및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출생·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는 육아수당 확대와 함께 공공보육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과교, 신대인, 정일, 키즈레일점음역 어린이집)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에 따라 수탁지는 내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5년간 어린이집 시설관리와 보육사업 전반을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어린

이들의 안전 보장을 목표로 공공보육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 밖에도 부모들의 육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4시 돌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을 추진한다.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학대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시설 개방과 부모 참여를 확대한 열린어린이집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은 보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보육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시장은 “양육 환경이 고물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육아수당 확대와 공공보육 강화를 통해 부모들의 부담을 덜고자 한다”며 “하이키우기 좋은 도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로컬푸드직매장 · 농촌협약센터 들어선다

우체국 옆 공터 매입 완료

고창군이 최근 고창우체국 옆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3105㎡)를 매입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중요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고창읍 핵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기재부 소유로 지난 20년간 빈 공터로 남아있었다.

이후 군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공간' 사업계획을 세우고 올해에만 3차례가 넘는 기재부 방문 등 설득 끝에

매입을 성사시킬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고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직매장'과 '농촌협약센터'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지 3105㎡, 연 면적 500㎡, 지상 3층 건물로 1층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2층에는 보육센터, 청소년·청년 문화공간, 다목적실, 3층 협약센터사무실, 대회의실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내

중·소·고령 농들을 위한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 창출 기회 제공의 방안으로 제시되어 왔다.

또한 고창군 13개 지역에서 이뤄지는 437억원 규모의 농촌협약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농촌협약거점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읍·면 소재지와 각 마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군민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제공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립중앙도서관, ‘전북 우수 도서관’ 선정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이 전북자치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우수 도서관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로써 시립중앙도서관은 도지사 표창을 수상, 지역 독서문화의 중심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47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 운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운영실적을 기반으로 △장서의 충실성 △관장의 전문성 △사자의 증가비율 △전년 대비 프로그램 참여자 증가비율 △지역사회 협력 및 유대활동 △도서관 운



영계획 수립과 수행 등 총 6개 주요 지표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시립중앙도서관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시립중앙도서관은 세대 간 소통을 위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일환으로 설화그림책 2종을 출간하고 이를 관내 학교와 기관에 보급했다. 시민작가들이 어린이들과 직접 소통하며 책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도 주목받았다.

또한 동화창작 글쓰기반은 2019년 시작된 이래 올해 다섯 번째 문집인 '정글보따리'를 출간하며 지역 주민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시립중앙도서관이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소통의 중심이자 출발의 기회가 있는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하반기 특별교부세 21억원 확보

진서면 작은목욕탕 건립사업 · 도시침수 예경보시스템 구축 등

부안군이 지역 현안사업 및 재난예방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집중한 결과, 하반기 특별교부세 21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내국세 감소로 보충교부세가 감소한 가운데 군은 중앙부처와 정치권 등을 통해 최대한 교부세를 확보해 부족 재원을 충당하고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현안사업 3건에 11억원, 재난사업 1건에 10억원이다.

사업별로는 '현안' 진서면 작은목욕

탕 건립사업 5억원, 공영 수산물판매센터 리모델링 사업 3억원, 남부안랜드마크 양묘장 공원화사업 3억원, 재난·주산면 ICT기반 도시침수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 10억원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사업은 군 주요 당면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군민의 안전에 매우 소중한 예산”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재정여건 극복을 위해 중앙부처를 지속 방문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하반기 특별교부세 18억원 확보

지역현안 해결 · 재난위험시설 정비 등 군민 편익 · 안전 확보 총력

고창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3개 사업에 18억원을 확보해 지역주민의 현안을 해결하고 재난 안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받는 재원이다.

군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역국회의원인 윤준병 의원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 행정안전부에 방문하여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 사업은 △고창읍주민행복센터 청사 증축공사(9억원) △흥덕면 사포소하천 정비사업(8억원) △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3억원) 등 3개 사업이다.

'고창읍주민행복센터 청사 증축공사'는 고창읍주민행복센터 부지 내 각종 물품을 쾌적하게 보관할 수 있는 다목적 수납공간을 확보하는 하는 사업이다.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통해 군민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흥덕면 사포소하천 정비사업' 및 '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재해 예방 사업으로, 미정비된 사면 등 하천의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해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교부금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고창군의 지역 현안 해결과 군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전북자치도 환경교육 시범도시 선정

정읍시가 전북자치도에서 지정하는 환경교육 시범도시로 선정되며 주민 자치적 환경보전 의식과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활성화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환경교육 시범도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경제생명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2조와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고 지역에 맞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된다. 이 사업은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계획, 실적, 기반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도시를 선정해 지원한다.

시는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지

체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또 △환경교육 추진 의지 △환경교육 기반 △환경교육 성과 △환경교육 계획 등 평가 항목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는 전북자치도가 다양한 환경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 및 현장 평가로 이뤄졌고 이후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전북자치도 최초 환경교육 시범도시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향후 3년간(2025년~2027년) 환경교육 기반 강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모델 구축을 위한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